

2023. 8. 18.(금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8월 1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

광화문광장사업과장	이 상 면	2133-7817
광장정책팀장	이 창 훈	2133-7711
광화문광장 누리집	https://gwanghwamun.seoul.go.kr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‘개장 1주년’ 광화문광장, 다양하게 변신하는 서울의 매력 공간

- 광화문광장,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‘공원 품은 광장’으로 ’22년 8월 6일 재개장
- 명실상부 K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
- ‘23 서울썸머비치’, 분수 물놀이터 등을 통해 도심 속 시원한 여름 피서지로 변신
- 역사, 문화예술을 즐기고 느낄수 있는 서울의 매력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중

’23년 8월 6일은 광화문광장이 새롭게 개장한 지 일 년이 되는 날이다. 시원한 물놀이가 한창인 올 여름 광화문광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. 공사를 시작(’20.11.16)하기까지 300회가 넘게 시민과 소통하며 ‘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’, ‘공원 같은 광장’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한 서울시는 이러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.

○ 광화문광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8월 1일 최초 개장하였으며, 당시에는 광화문에서 세종로사거리까지 세종로 중앙에 길이 740m 폭 34m 규모로 조성되었다. 당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「도심 재창조 프로젝트」 일환으로 광화문광장은 광화문과 육조거리의 역사를 되살

리고, 북악산의 아름다운 경관 조망을 광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 줄 수 있었다.

- 이후 2022년 8월 6일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탄생했다. 광화문광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그늘과 쉼터 등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,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시민의 뜻을 담았다.
 - 녹지(9,367㎡)는 기존(2,830㎡)보다 3.3배로 늘어났고 숲과 그늘이 풍부한 공원 같은 광장을 만들기 위해 키 큰 나무 300그루를 포함한 5,000주의 나무를 광장 곳곳에 심었다. 그 결과 특히나 무더운 올여름, 광화문광장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과 쉼터가 곳곳에 만들어졌다.
 - 지난 1년간 광장에서는 가족, 친구, 연인 등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담소와 여유를 즐길 수 있었고, 상설무대에서의 음악공연·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. 현재 광화문광장에서는 3개 지점(광장 숲, 문화쉼터, 사계정원)에서 하루 2회 이상의 '구석구석라이브' 공연이 진행돼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 지친 시민들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.
 - 후서기를 맞아 잠시 쉬고 있는 '광화문책마당'은 광장 곳곳에서 책을 읽고 문학을 즐기며 오감으로 가을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는 9월 재개될 예정이다.
- 이와 함께 광화문광장에서는 '빛초롱축제', '2022카타르월드컵응원전', '서울페스타2023', '2030부산세계박람회홍보' 등 전 세계에 K콘텐츠를 알리는 대표 행사들이 꾸준히 개최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.

- 특히 지난 3월 ‘국제박람회기구(BIE)’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‘2030부산세계박람회’ 유치 기원 행사가 광화문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리기도 했다.
- 역사와 현재, 미래가 공존하는 광화문광장에서는 K팝, K드라마, K뷰티, K패션 등 한국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, 여러 민·관 기관들과 협력해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서울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이다.

□ 재개장 이후 1년 만에 돌아온 광화문광장의 여름은 다양한 여름철 행사로 채워졌다. 도심 속 여름 피서지 ‘서울썸머비치’가 8월 13일(일)까지 성황리에 개최됐으며, 안온한 일상을 누리는 ‘광화문달빛요가’, 문화와 공연으로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‘세종썸머페스티벌’은 각각 8월 31일(목), 9월 9일(토)까지 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. 광화문광장은 아이들의 물놀이터이자 엄마·아빠의 이야기 나눔터, 누구나 일상에서 쉬고 즐기는 문화쉼터로서 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도심 속 매력 만점의 공간이다.

- 지난해 개장 이후 여름철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단연코 명량분수, 한글분수, 터널분수 등 광화문광장의 분수 삼총사이다. 옷과 신발이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는 아이들을 위해, 올해는 더욱 즐겁고 풍성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썸머비치를 개최하여 탈의실, 건조시설, 에어슬라이드, 수영장 등의 시설을 추가하고 푸드트럭, 휴게시설 등을 제공해 도심 속 여름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.
- 또한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한 세계 각국 잼버리 단원들이 광화문광장에 방문하여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기도 하고, ‘광화문달빛요가’의 요가 수업과 ‘세종썸머페스티벌’의 댄스 파티를 직접 즐기며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도 했다.

-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“지난해 8월 개장 이후 광화문광장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휴식 할 수 있는 일상 속 여유 공간이자 문화·예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공간으로 성장해가고 있다”면서 “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광화문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